

“할 수 있는 일 실천…사각지대 줄여가겠다”

이지애 광주동구의원

대학원 시절부터 광주서 학원 운영

지원 학생들 타인 돋는 선순환 실감

자비신행회 인연 더 많은 현장 접해

“복지소외 제도적 개선 등 체감 정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봉사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활동을 넘어 제도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나가 체감할 수 있는 정치를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광주 동구의회 이지애(55·사진) 의원은 15일 자신이 해왔던 봉사, 앞으로 해나갈 봉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제9대 동구의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이 의원은 진도에서 태어나 청년 시절 대부분을 광주에서 보냈다.

진도 석교고등학교(현 국악고등학교)를 졸

업한 후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학과에 진학한 그는 학기 중엔 청주에 머물다 병학 때 광주로 내려와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청소년기 부모님 두 분을 모두 떠나보낸 그가 홀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선택한 업(業)이었지만, 이 일은 자신의 사소한 행동이 다른 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됐다.

이 의원은 “대학원을 다닐 때부터 학원을 직접 운영했는데,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눈에 들어왔다”며 “학원비가 없거나 부족해도 공부만하고 싶다면 늦게까지 도와줬던 아이들이 의사나 연구원으로 성장해 비슷한 처지의 다른 이들을 돋는 걸 보고 이런 게 봉사라는 걸 느꼈다”고 전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것. 이 행동과 정신은 그가 50세까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동안 쭉 이어져 왔다.

그 사이 맺은 자비신행회와의 인연으로 그는 새로운 봉사에 눈을 떴다.

이 의원은 “무등육아원에서 어려운 아이들에



제 공부를 가르치던 중 자비신행회를 알게 돼 2010년대 중반부터 음식 만들기와 배식 봉사를 시작했다”며 “지역 내 많은 어르신을 만나면서 복지 시스템이 촘촘하다는 우리나라에서도 사

각지대가 너무나 많다는 걸 실감했다”고 소회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시스템이 돋지 못하는 걸 민간 영역의 종사자들이 대신하고 있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며 “제도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선택한 게 정치의 길이었다”고 부연했다.

실제 지난해 광주 동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위험 가구를 전수조사 한 것도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근거로 진행됐다.

이 외에도 이 의원은 지역 내 어려운 분들의 사연을 접하면 기존 시스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행정 기관과 연계하고 현재로선 불가능한 것들은 자비신행회 같은 민간 단체를 소개하는 등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누군가에겐 사소한 행동이 다른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실제 도움이 되는 봉사,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치를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재영 기자

이기웅 목포울림 회장 16년째 나눔 실천



십수년째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한 봉사단체 대표의 남다른 ‘이웃 사랑’이 뒤늦게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봉사단체 ‘목포울림’을 이끌고 있는 이기웅(사진) 회장.

15일 목포울림 등에 따르면 수산업에 종사하는 이 회장은 바쁜 생업 중에도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해 남몰래 조끼를 후원했다. 해당 조끼는 이 회장이 직접 손질하고 말린 것으로, 번거로운 과정을 마다하지 않고 어르신들의 밥상을 살뜰히 챙겨온 것이다.

이 회장의 선행은 개인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는다. 그가 이끄는 ‘목포울림’은 40여명의 회원이 16년째 지역 곳곳을 누비는 ‘목포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들은 정기적인 배식 봉사와 명절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 6·8일에는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를 통해 담근 김치를 상동종합사회복지관과 하나노인복지관, 목포이랜드노인복지관, 성모의 집 등에 전달했다.

이기웅 회장은 “후원의 손길이 줄어드는 추운 겨울일수록 나눔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이웃의 생존을 위한 필수 지원”이라며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김장 김치가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목포=정해선 기자

광주 중등교사 3명 ‘대한민국 수학교육상’

전국 9명 뿐…市교육청 최다 배출

장미라·김은실·김윤미 교사 선정

수학 독서 기반 탐구활동 등 호평

광주 중등 수학교사 3명이 ‘2025년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을 수상했다.

15일 광주창의융합교육원에 따르면 수상자는 장미라(우산중)·김은실(월계중) 교사와 김



장미라 김은실 김윤미

윤미 광주창의융합교육원 파견교사다.

‘대한민국 수학교육상’은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학교육 발전에 기여한 교원의 공

로를 격려하고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수여하고 있다.

매년 수학 수업의 혁신적 개선과 평가 방식의 발전, 연구 활동 및 사회적 공헌 등을 심사해 10명 내외의 수상자를 선정·시상하며 신청 접수는 17개 시·도에서 지역별로 진행한다.

올해는 전국에서 9명이 선정됐으며 광주가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했다.

장미라·김은실 교사는 올해 광주 수학교육의 주요 사업인 ‘수학온다(on多)학교’와 ‘수학이

있는 강연’에 참여해 ▲학생 질문 중심의 수업 ▲수학 독서 기반 탐구 활동 ▲개별 맞춤형 피드백 등을 통해 학습 격차 해소와 자신감 향상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윤미 파견교사는 광주 수학체험센터장으로 체험·탐구 기반 프로그램을 강화해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의 수학교육 생태계를 넓혀 수학문화 활성화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단 한 명의 학생도 수학 때문에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친 결과다”며 “수학온다학교”, ‘수학성장학교’, ‘맞춤형 수학 학습 지원’ 등을 더욱 강화해 ‘수포자’ 없는 광주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박선옥 기자



김태훈 순천시의원, 소상공인聯 ‘목민감사패’ 수상

순천시의회는 “최근 김태훈 의원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5 소상공인연합회 시상식’에 서 목민감사패를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목민감사패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 정신을 계승해 소상공인 권리 보호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 의원은 순천역세권과 연합동 상권 활성화 정책 제안, 고물가·고금리 위기 극복을 위한 지

원 촉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조례 제·개정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김태훈 의원은 “이번 수상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골목을 지켜온 소상공인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장홍경찰, 안보자문협의회 하반기 정기회의



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홍원 경찰서장은 “올 해 탈북민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준 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민과 화합하며 어려움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장홍경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학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탈북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당



/장홍경=노형록 기자

전남개발공사, 5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 인증

전남개발공사가 전국 도시개발공사 가운데 최초로 5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15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번 인증은 공사가 채용 과정에서 학력, 성별, 연령,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를 정착시켜온 노력이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은 한국경영인증원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이뤄지며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도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전남개발공사는 채용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으며 면접 전형은 외부 전문가로 100% 구성해 운영하고, 평가 오류를 방지하는 절차와 채용검증위원회를 포함한 다층적 통제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종모 사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으로서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채용 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며 “열린 채용, 공감 채용 문화를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재정 기자

영광교육지원청, 교육발전특구 성과공유회

영광교육지원청은 “최근 영광스포티움 체육관에서 영광군과 함께 ‘미래를 JOBDI! 영광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하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학교들은 진로 교육과 창의적 체험 활동 등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일궈낸 다채로운 교육 성과를 전시하고 발표하며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부모 대상 특강과 입시 설명회가 열려 큰 호응을 얻었으며, 행사장 곳곳에는 ▲학교 홍보관 ▲직업 체험관 ▲기업 홍보 및 진로 컨설팅관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했다.



정병국 교육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탐색하고 지역 안에서 미래를 설계해 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는 교육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광=김동규 기자

이기섭 고서 후계농업경영인회장 쌀 기탁

담양군 고서면은 “최근 이기섭 고서 후계농업경영인회 회장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달라며 200만 원 상당의 쌀 60포를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친환경농법으로 정성껏 재배한 쌀은 결식 우려가 있는 이웃에게 우선 전달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사랑의 쌀로 이웃들에게 추운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역사회에 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2025 봄 우이웃돕기 (쌀) - 고서면 후계농업경영인회 / 고서면 이장단 -